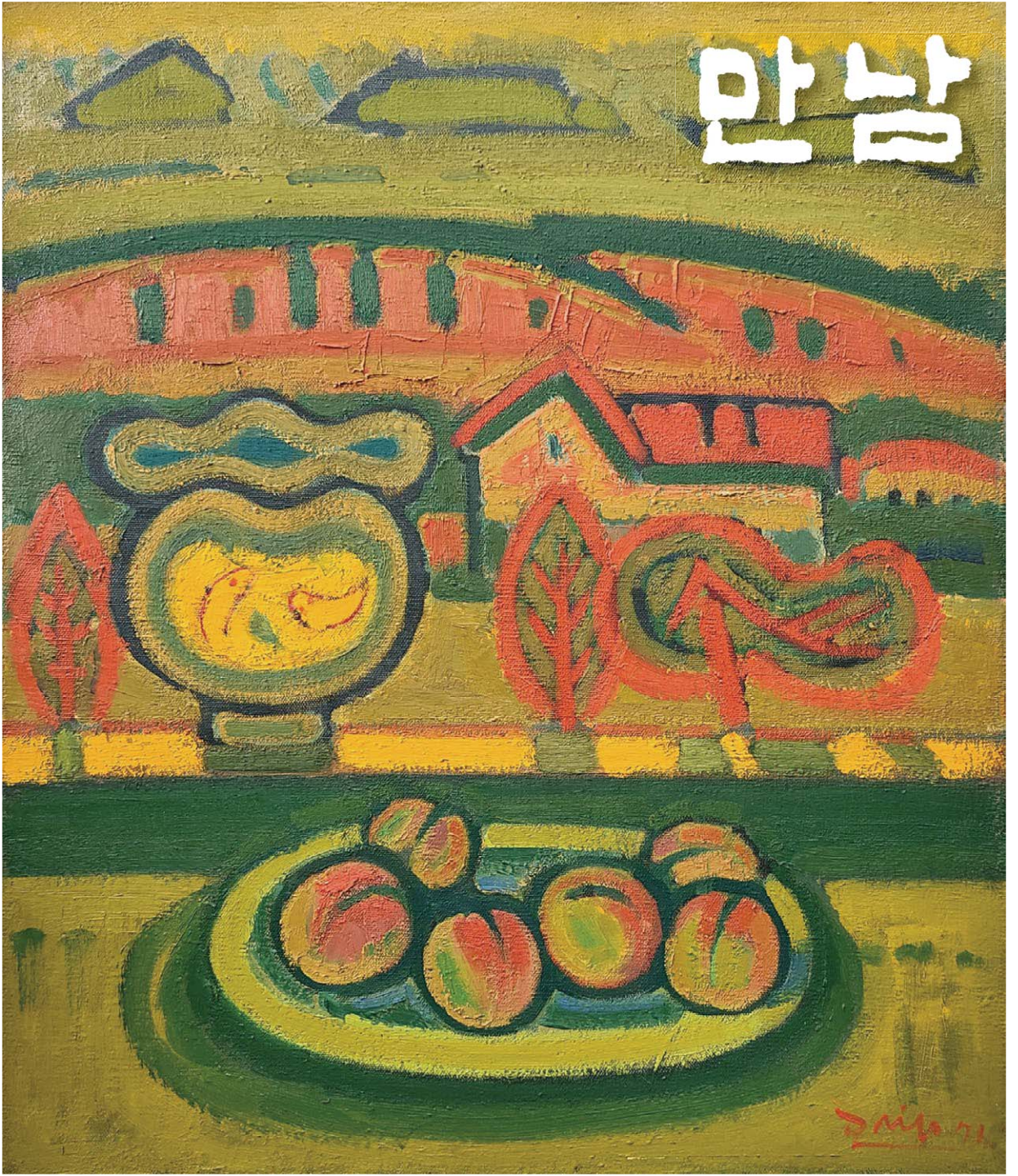


만남



영락이여, 올라가라

(사사기 1:1~2)



표지

정물이 있는 풍경(1971, 10호)
윤중식(1913~2012)

깊어가는 가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품격을 지
키며, 주님의 사랑 속에서 하루
하루를 감사로 채워보세요.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10월 목회력

- | | |
|--|----------------------------------|
| 04 금 · 연합권찰모임 | 05 토 · 영락가족특별새벽기도회 |
| 06 주일 · 주일예배 성찬(1~5부) | 11 금 · 문화선교축제 |
| 13 주일 · 사랑부, 고등부, 대학부, 베드로부, 청년부, 자유인, 국제예배 성찬, 선교주일, 학원선교대회, 제직회 | 18 금 · 심방준비회 |
| 16 수~18 금 · 선교부흥회 | 21 월~23 수 ·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
| 20 주일 · 교적 확인의 날, 아동부찬양제 리틀스타 | 25 금 · 선교바자회 |
| 23 수 · 선교바자회 | |
| 27 주일 · 종교개혁기념주일, 교적 확인의 날, 소그룹의 날, 사회봉사주일 | |

만남

2024년 10월호
통권 607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찬란하게 물들게 하소서 김운성

특집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② 성도의 품격

05 품격있는 그리스도인 김겸섭

08 성화, 리스펙 받는 크리스천의 조건 이창조

특별기고

10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는 성도입니까? 강승훈

12 성경 한류, 복음 한류, 한국어 열풍 민현식

땅끝까지 이르러

16 보냄 받은 자여! 올라가라! 선교부

18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 진승학원 이재성, 박나래

21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김민혁

2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김경미

다음세대 / 청년광장

26 영락의 미래 One Team '무력무력' 김지수

28 3040 연합, 리더십보다 팔로워십 황성수

기독교 인문학

30 예배 음악 솔로몬 시대 자리잡아 박신화

32 건축, 삶을 담아내는 그릇 오동희

만남 그리고 사람들

36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조영리

38 벌레 같은 날 위해 안태운

40 소그룹 모임, 말씀이 삶 속으로... 유현승

영락의 울타리

42 사랑의 실천자로 성장하세요 김주엽

44 가정, 영성의 요람 이강학

47 110살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 조상호

50 스테반처럼... 안수집사회 헌신합니다 안수집사회

교회소식

52 전교인 만남주일 외

60 압도적 크기에 담은 구름 위 풍경 정재원



찬란하게 물들게 하소서

김운성 위임목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3~5)

한 마디로 가을의 매력은 색깔입니다. 가을 이전에는 온통 초록색 일색인데, 가을이 되면서 형형색색으로 물듭니다. 요즘 강단 곳곳이 가을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아 기쁩니다. 가을은 문자 그대로 울긋불긋 그 자체입니다.

색깔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캄캄한 검정만 있을 뿐입니다. 사진과 그림은 빛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을 먼저 창조하셨으므로 그 빛 아래서 둘째 날부터 창조된 만상이 색깔을 뽐냈습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각종 식물과 새들과 동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까지도 빛의 은총으로 색깔을 자랑합니다. 기쁨이 흐르는 흑발, 찬란하게 빛나는 금발, 신비로

운 파란 눈동자, 갓난아기의 하얀 얼굴, 햇볕에 그을린 젊은이의 얼굴, 이 모든 것이 다 색깔입니다.

외모만이 아닙니다. 인생도 빛 아래서 색깔을 드러냅니다. 사울은 충혈된 눈에 분노 가득한 굳은 얼굴을 하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울의 얼굴을 색깔로 말한다면 칙칙한 회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형언할 수 없는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22장 6절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했고, 26장 13절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그 빛은 정오의 태양 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

도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여 죽이고 가두는 죄인인 사울까지 품는 용서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한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세우시는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받은 후 사울에게서도 색깔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나타난 색깔은 강인함과 온화함, 단호함과 따스함,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자기희생 등 다양했습니다. 바울로 산 인생은 총천연색처럼 화사했습니다.

*다메섹 향하던 칙칙한 회색 얼굴의 사울
하늘의 빛 받고 총천연색 바울로 바뀐 것처럼*

*이 가을 우리도 저마다의 색깔로 물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보탬이 되었으면...*

이번 가을은 여름처럼 덥지만, 그래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가을이 깊어집니다. 이제 온 만상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태양 빛 아래서 현란하게 색깔을 뽐낼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곁에 가을 나무 한 그루처럼 서 있습니다. 우리만 칙칙한 모습으로 있으면 곤란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도 각자의 색깔로 물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움에 보탬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나요? 인품과 삶이 어떤 색깔을 보여주길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색깔을 주셨습니다. 여러 해 전 9월 말에 백두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더위가 한창인 그때, 이미 백두산 일원은 가을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백두산까지 접근하는 수십 킬로의 도로를 달리는 동안 주변은 온통

노란색이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그곳에는 노란 단풍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신 색깔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붉은 단풍도 있습니다. 흔히 단풍나무라 부르는 나무는 Acer palmatum라고 하는데, Acer는 라틴어로 ‘뿔족한’이란 뜻으로서 잎이 뿔족하게 갈라진 것을 나타내고, palmatum은 ‘손바닥 모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변종을 포함해 30여 종의 단풍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붉은색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독특한 색깔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품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색깔로 물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들 때 물들어야 합니다. 늦가을에도 여전히 푸른색을 고집하면 좀 곤란합니다. 또 물들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색깔로 물들어야 합니다. 은행잎이 붉은색을 고집한다면 어떨까요? 자연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비추어 제각기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색깔로 독특하고, 바울은 바울의 색깔로 강렬합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의 색깔로 우아합니다. 그것이 은사지요. 주님께서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은사야말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색깔이라 생각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충성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양한 색깔로 찬란하게 물들 것입니다. 영광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곱게 물든 나뭇잎처럼 익어가는 가을이 되길 원합니다. **만남**



HOLY BIBLE

성도의 품격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납니다.
'복음'을 읽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먼저' 읽게 되죠.
성화의 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기쁨과 자비, 정직과 정의, 인내와 소망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미덕과 성품은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발산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품격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품격과 분리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정말 진리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할 권리를 갖게 된다

- 프란시스 웨퍼 -

'장발장'에서 '마들렌'으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보면, 1812년 10월 '한 남자'가 19년의 형기(刑期)를 마치고 출소한다. 손에는 위험한 사람임을 의미하는 '노란색 증명서'가 들려있다. 세상은 출소한 장발장에게 냉대를 쏟아냈고, 장발장은 그런 세상을 노려보며 증오로 맞섰다. 거처가 없던 장발장이 주교관에 들어가 은그릇을 훔치나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에 의해 주교관으로 끌려온다. 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한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의 배려로 풀려난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미리엘 주교의 선언에 회심한다. 얼마 후 프랑스 북부에 있는 도시인 몽트뢰유쉬르메르에 '마들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다. 작가는 마들렌의 선행을 "흔히 나쁜 일은 몰래 하는 법인데 그는 수많은 선행을 그리했다"라고 서술한다. 마들렌의 선행에 감탄한 사람들은 그를 시장(市長)으로 추대한다. 마들렌은 누구인가? 마들렌은 장발장의 '다른 이름'이었다. 마들렌은 장발장이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와 단절한 후 새롭게 태어난 '변화된 이름'이었다. '성화(聖化)'를 '문학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장발장의 삶'에서 '마들렌의 삶'으로 이룩(離陸)하는 행위이다.



김경섭 목사
한마음교회 담임

기독교인에게 성화가 필요한 까닭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희로애락(喜怒哀樂)'이라는 '두 영역'에 갇혀 산다. 그런데 삶에는 '두 영역' 외에 '고급스러움'이란 영역이 존재한다. 이는 특급호텔에 묵으며 별미를 즐기고 골프를 치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삶은 단지 '사치의 영역'일 뿐이다. 고급스러움이란 배려, 섬김, 감사와 같은 품위와 품격을 실천하는 정신적 귀족의 삶이다. 정신적 귀족의 삶을 기독교 언어로 표현하면 '성화'다. 베드로는 성화를 "신성한 성

품에 참여하는 삶”(베드로후서 1:4~7)으로 규정했고,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로마서 12:2)과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갈라디아서 5:16)으로 해석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8문답은 ‘신자의 완전한 성화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성화가 필요한 까닭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읽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먼저 읽게 된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고린도후서 3:3)라는 신성한 지위를 부여한 까닭이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염상정(染常淨)의 삶

윌트 디즈니의 전기를 썼던 작가 닐 개블러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숭고한 종교나 심오한 철학이 아니라 ‘오락’과 ‘쾌락’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품격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찮은 것들에 열광하는 시대에도 ‘성화’의 다른 표현인 ‘염상정(染常淨)’의 삶, 곧 ‘더러운 곳에 있어도 항상 자신을 깨끗이 하다’를 실천하기 위해 세 가지 변화를 선택한다.

말과 언어의 변화

품격있는 그리스도인은 ㄹ 받침의 세 글자를 조심한다. 곧 말, 칼, 술이다. 특히 말에 유의한다. 말(word)은 칼(sword)을 닮았다. 말은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인검(死人劍)이다. 따스한 격려와 위로의 말은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마라의 고통을 사는 사람을 엘림의 샘물과 그들의 쉼으로 이끄는 힘을 발휘한다(출애굽기 15:22~27). 그러나 험담, 이

간질, 거짓말은 공동체의 삶을 지옥으로 편입시키는 악덕들이다. 사울의 목자장 도역의 악한 말은 다윗을 도와 주었던 놉 땅의 아히멜렉은 물론 85인의 제사장 외 많은 사람과 가축을 도륙당하게 했다(사무엘상 22:1~19). 악한 말보다 잔인한 폭력은 없다.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은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점검하라.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 필요한가, 그 말이 아름다운가”라는 눈부신 시어를 들려주었다. 품격있는 그리스도인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에베소서 4:29)라는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한다.

지갑의 변화

사람들은 명품에 집착한다. 남자는 지갑, 여자는 핸드백이다. 특히 남자에게 지갑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증명해 줄 명함을 넣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가의 지갑과 격(格)을 달리하는 색다른 지갑이 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다. 625 전란 때 종군기자로 참전했던 로버트 피어스는 거제도에서 전쟁고아들의 참상을 목격한 후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구휼단체를 설립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치, 향락을 위해 열었던 부끄러운 지갑을 이제 “지옥을 살아가는 전쟁고아들을 위해 열지”라고 설득한다. 공감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의 지갑’에 현금을 기부했고, 이 현금은 절망을 살던 빈민과 전쟁고아들에게 희망 있는 내일을 선물했다. 삭개오의 별의 순간은 로마와 결탁하여 세리장과 부자가 된 출세가 아니라, 여리고의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지갑을 여는 순간이었다(누가복음 19:1~10). 요한 웨슬리는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럼에도 ‘탐욕과 인색함’에 중독되어 자신의 지갑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라는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한다.

시선과 생각의 변화

존 밀턴의 「실낙원」에 ‘맘몬’이란 존재가 등장한다. 맘몬은 땅 아래 매장되어 있는 황금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맘몬의 곁에 있으면 그로부터 황금을 선물로 받아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맘몬이 루시퍼의 반란 사건에 연루되어 하늘에서 추방되자, 황금을 찾는 능력은 인간에게 옮겨진다. 이후 인간들은 양심과 진리까지 외면하며 황금 찾기에 몰입한다. 이것이 황금을 신(神)으로 경배하는 맘모니즘의 탄생이다. 사람을 표기하는 헬

라이어 ‘안드로포스’의 의미가 ‘하늘을 바라보는 자’임을 생각할 때 땅만 바라보며 살게 하는 맘모니즘은 비극이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골로새서 3:1~2)라고 권면한다. 성화는 위의 것과 땅의 것과의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다. 그런데 위의 것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황금, 명예, 권력과 같이 인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땅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품격있는 그리스도인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테살로니가전서 5:21)을 선택한다. 끝으로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악마는 하나님과 싸운다. 그 싸움의 장소는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승리’로 채워지는 품격을 갖출 때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임할 것이다. **만남**

성화, 리스펙 받는 크리스천의 조건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가요?

최근 한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회사에서 일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이 매우 부담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큰 장벽이 생기고,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임을 말하지 않았다면 3주 정도면 서로 친해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던 관계가, 그 사실을 밝히는 순간 3개월, 아니 3년이 지나도 여전히 편치 못한 관계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일이며, 많은 성도가 실제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최근에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은 본래 그런 곳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원래 잘 어

울리기 어려운 법'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잊고, 그럭저럭 지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화 안 된 삶, 세상이 오히려 무시·거부

집사님과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후,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한 사람, 어울리기 싫은 사람, 또는 거부당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의,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삶은 있지만, 그것이 성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성도의 품격을 주변에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배척하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대다수 성도는 교회 안팎으로 휘몰아치는 세속화의 물결로 인해, 신앙을 고백하고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욕심이 더 많다. 거짓말을 잘한다. 타인을



이창조 목사
노원교구, 목양부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도의 품격을 잃어버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인들에게 실망감을 줌으로써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시민으로서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단순히 위치의 변화가 아닌 놀라운 성품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또한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당연히 신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격과 가치관, 삶의 방식이 형성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성품(품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격 닮는 형상 회복 있어야

현대 선교신학에서 선교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미시오 데이(Missio Dei)’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 세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궁극적인 복음 전도에 힘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품격을 닮는 형상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우리의 형상과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품격을 대표하는 존재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이마고 데이(Imago Dei)’에서 시작해 ‘미시오 데이’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갖춰 하나님의 선교 이루어야

몇 해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리스펙(Respect)’이라는 용어가 유행했습니다. 이 말은 존중, 존경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 성품, 행동, 가치관 등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성 있고 신념이 있는 소위 멋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이 용어가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에게도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춘 성도라면,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리스펙’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이 어려운 시대와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진리의 등대이자 생명의 원천으로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품격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온갖 중독과 죄악의 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영혼을 해독하는 존재가 되어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선교적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하루하루의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만남**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는 성도입니까?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까닭

면죄부 판매가 도화선이 되어 중세 교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직자의 타락이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사제를 중재자로 세우고, 교회를 신분(身分) 사회로 변질시킨 결과였습니다. 오랜 세월 자리 잡은 이 신분제(사제주의)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결과, 돈과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교회는 수직적 구조 속에서 소수 권력자의 욕망이 활개치도록 방관하는 ‘도둑의 소굴’(예레미아 7:11)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출된 종교개혁의 결과로 다양한 개혁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교회 또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칼뱅의 장로 제도를 기반으로 세워진 개혁교회 중 하나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Reformata ecclesia semper reformanda)”라는 가치를 내걸고, 500년 전 교회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열심과 이를 위해 생명을 바친 믿음

의 선배들을 기념하며, 다가올 미래의 교회를 복음으로 세워가기 위해 전 세계의 개혁교회들은 매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님

종교개혁의 정신과 가치, 그 의미와 실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어 하나의 몸(에베소서 1:22~23)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임을 믿고 사제주의를 배격(排擊)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의 번영과 안녕을 구실로 유능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쉽게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디모데전서 3:15)로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골로새서 1:24)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마태복음 16:24)를 지고, 세속적인 애착을 끊어내며 오직 주님을 교회의 참된 주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종교개혁, 천국이 이 땅에 이뤄지는 성령의 역사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방향과 내용입니다.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Tori Higgins)는 인간에게 두 가지 동기(動機)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접근(接近)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것을 피하려는 ‘회피(回避)동기’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중세 교회의 어둠을 피하려는 회피가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시작된 것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도 내부적인 개혁이 있었고, 지금까지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개혁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리와 생명을 향해 끊임없이 개혁하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에 우선하는 가톨릭교회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종말(요한계시록 21:5)을 향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개혁하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좁은 문, 하지만 생명 길 걷는 우리는 순례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 즉 제자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도 그렇듯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 대가를 지불(누가복음 14:26~28)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생겨난 개혁교회는 중세로마 가톨릭교회의 영향 아래서 생명을 빼앗기는 핍박을 당했고, 오랜

기간 종교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여파로 개혁교회의 많은 성도는 고향을 떠나 유럽의 변방으로 흩어졌으며, 자신들이 속한 시대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히브리서 11:13~16)을 살아야 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과 개혁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길은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라는 천년의 세월을 지나며, 인습이 우선시된 제도와 형식주의가 교회와 국가, 성도와 세속사회의 이해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사제들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역시 하늘에서 갑자기 푹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참된 교회를 갈망한 깨어있는 성도들의 피와 땀,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쌓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10월에, 영락교회 성도님께 묻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영락교회는 무엇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고 있는 제자입니까? **만남**

강승훈 목사
관악·동작·금천교구
경조부, 홍보출판부



성경 한류, 복음 한류, 한국어 열풍

(K-Bible) (K-Gospel)

한국어는 전 세계 7,300여 개의 언어 중 남한 5,100만, 북한 2,500만, 해외 750만 도합 8,350만이 쓰는 세계 20위의 대국언어이다. 또한 한글은 로마자, 슬라브 키릴 문자, 아랍 문자, 중국 한자, 일본 가나 등과 함께 세계 문명을 대표하는 10대 문자로 꼽히며, 배우기 쉬운 표음 문자 중 으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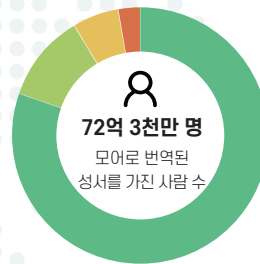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한글은 불경이나 유교 경전을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당시 지배층이 한문을 더 중요시하던 탓에 대중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로스와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순 한글체로 성경을 번역한 <예수성교전서>(1887)와 <(신구약)성경전서>(1911)는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 한글 성서는 '복음전파'와 '문맹퇴치'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해냈다.

비록 조선왕조는 망했지만, 복음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과 같은 민족대각성을 통해 조선인의 영혼을 변화시켰다. 복음의 전파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자



민현식 장로
새문안교회
서울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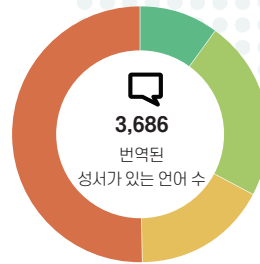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서를 가지고 있나요?



성경전서
59억 6,000만 명
신약성서
8억 2,400만 명
단편성서
4억 4,700만 명
성서 없음
1억 8,800만 명

총 언어 사용자 수
74억 명

성서가 얼마나 많은 언어로 보급되고 있나요?



성경전서
743개
신약성서
1,682개
단편성서
1,261개
성서 없음
3,710개

총 언어 수
7,396개

자료: 세계 성서 번역 보급 현황
(대한성서공회 '성서한국' 2024 여름호 참고)

각을 일깨웠고, 3·1운동으로 이어져 자주독립 정신을 고취시켰으니, 마침내 해방 이후 민주공화제와 자유시장경제의 나라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한글성서가 우리 문화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한글성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민족 최고의 선물

복음 전파와 문맹 퇴치 - 한글성서 덕분에 기독교 전파가 쉬웠고, 당시 80~90%에 달하던 문맹자들의 문맹퇴치에도 기여했다.

한국인의 정신세계 변화 - 유교와 불교사상에 갇혀 있던 한국인들은 한글성서를 통해 만민평등, 남녀평등, 자유와 인권, 시장경제, 구속사, 인류구원의 성서적 세계관을 알게 되었다. 이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를 이루었다.

한자 문화에서 한글 문화로의 전환 - 한글성서는 양반 중심의 '사대주의 한자 문화'를 평민 중심의 '민주주의 한글 문화'로 변화시켰다. 또한, 유교, 불교, 한자 문화로 상징되는 대륙문명에서 벗어나, 서구의 자유 해양문명을 받아들여 새로운 한글 문화를 창조하게 했고, 통일신라의 해양문명을 다시금 재현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어 문체 발달에 기여 - 한글성서는 붙여 쓰는 한문체를 탈피하고, 국한혼용체를 넘어, 띄어쓰기를 포함한 한글 전용체를 실천함으로써 한국어 문체 발달에 획기적 영향을 끼쳤다. (다만, 한글전용과 별개로 한자 문화와 한자어 이해를 위한 한자 교육이 지속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글 읽기 혁명과 근대화 - 한글성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라틴어 중심의 성경에서 민족어 성경 번역으로 이어져 문맹퇴치와 읽기혁명으로 르네상스, 산업혁명, 근대혁명을 이룬 것처럼, 한자 중심의 문화를 벗어나 한글 읽기 혁명을 이루고,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를 이루었다.

일제 강점기 한국어 보존 - 일제 강점기 동안 한글성서는 교회가 우리말 설교와 찬양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한국어를 지키는 중요한 방주 역할을 했다.

국어 연구 촉진과 교육 준비 - 한글성서는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 국어연구를 촉진했다. 새문안교회 교인이었던 최현배가 이끌던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는 <한글맞춤법통일안>(1933)과 <큰사전>(1957)을 완성해 해방 후 어문교육을 준비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외국어 남용, 욕설, 분열, 저주의 언어로 한국어를 일상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성장과 하나님의 섭리

한국은 해방 직후 세계에서 매우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피원조국 중 유일한 원조국가로 변모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은 인류사적으로도 기적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은 조선업, 철강, 자동차, 반도체, 전자 분야에서 세계 5대 제조업 국가가 되었고, 원자력, 우주항공, 방위산업에서도 성과를 내며, 무역수지 1조 2천억 달러로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 되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이룬 국가로는 미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 있는데, 한국은 5천만 인구밖에 안 되었는데도 일곱 번째로 그 대열에 들어섰다. 올해는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K-스포츠와 K-문화의 성장

한국은 파리 올림픽에서 8위를 기록하며, 양궁, 사격, 펜싱, 수영, 배드민턴 등에서 정상을 달려 K-Sports도 주

목받고 있다. 1960년대부터 서구로 떠난 태권도 사범들은 K-Sports의 원조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전파한 태권도 정신은 서구의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모범 청소년들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한인들의 손재주로 주목받고 있는 K-종이접기가 청소년 놀이, 치매 예방, 그리고 우주공학에까지 활용되어 그 응용력이 놀랍기만 하다.

1990년대부터는 K-드라마, K-pop, 영화, 한복(패션), 음식(김치, 비빔밥, 떡볶이 등)이 주목받아 '한류(K-Culture)'의 물결이 거세졌다. 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어나 미국 대학의 외국어 강좌 중 한국어가 10위권에 들어 섰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와 한국학 강좌가 늘어가고 있다.

영적 한류와 K-Gospel, K-Bible 시대

이러한 K-한류는 주로 육신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문화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한류', 즉 K-Spirit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와 유교 문화유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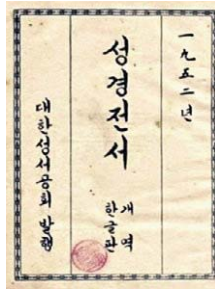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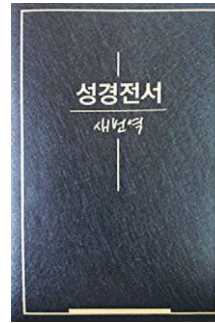
예수성경전서(1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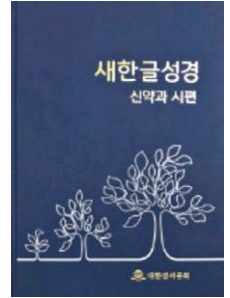
성경전서(1911)



개역한글(1952)



새번역(2001)



새한글성경(신약과 시편, 2023)

발상지 국가들보다 더 잘 보전하고 있는 한국은 자유민주화와 근대화를 선도해온 한국 교회의 성경 공부, 새벽기도, 부흥의 열정, 1만 2천 명의 선교사 파송을 통해 K-Gospel, K-Mission, K-Church라는 영적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1천만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바르게 살자'의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다.

대한성서공회는 파주 제본공장과 용인 보급기지에서 세계 최고의 성서 인쇄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언어로 된 성서를 전 세계로 보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K-Bible 시대를 열었으며, 작년에도 저개발국 87개국에 성서를 보급하며 문맹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한글성서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이 계속되었다. 전통문체인 '-더라, -느니라'체의 성서는 <개역성서>(1938), <개역한글성서>(1952, 1961), <개역개정성서>(1998)로 이어져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표 성서가 되었다. '-았다, -는다'와 같은 현대문체 성서도 필요해 <공동성서>(1977, 개정1999), <새번역성

경>(1993, 개정2001)도 발간되어 다음세대에게 인기가 높다. 작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최신 한글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발간했으며, 올해는 신구약 <새한글성경>을 연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문체의 장중함을 유지하면서 현대 문장부호를 넣어 읽기 쉽도록 새로운 <개역개정성서>도 2028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K-복음 시대의 사명

호텔, 학교, 병원, 군부대, 교도소에 성경을 보급하는 한국국제기드온협회는 미국기드온협회의 후원으로 영락교회와 새문안교회 장로 12인이 1963년 설립했다. 2003년에는 자립해 해외성서보급에 기여하고 있는데 영락교회는 단일교회 최고 현금으로 헌신하고 있다.

서구교회들이 비어가고 카페, 술집, 이슬람회당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는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따라 K-Gospel, K-Bible 시대를 열고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만남**

보냄 받은 자여! 올라가라!



**2024년
선교대회**
10월 11일(금)~18일(금)

2024년 영락교회 선교대회가 '보냄 받은 자여! 올라가라!'는 주제로 10월 11일(금)부터 18일(금)까지 열립니다. 주제 성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한복음 20:21)'입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봉헌되는 헌금은 군선교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쓰일 예정입니다.

2024년 선교대회는 10월 11일(금) 저녁 배다니홀에서 특별 금요기도회와 문화선교팀 창작 뮤지컬 <옴-하늘진주> 공연으로 시작됩니다. 뮤지컬 <옴-하늘진주> 공연은 12일(토) 오후 배다니홀에서 교육부(고등·대학·청년부)의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한차례 더 공연될 예정입니다. 12일에는 작년에 진행했던 <영락한글자랑대회>를 확대 개편한 (제1회 외국인 유학생 사역자 만남의 날)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약 24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복음제시 방안으로, 한글자랑 대회와 사역사례 발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3일(주일)에는 국내외 선교팀, 문화선교팀, 선교 소단체, 학원선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교주일 마당행사가 열리며, 오후 2시에는 <외국어예배 연합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영락(남)나(눔) 바자회'는 10월 23일(수)과 25일(금)에 여전도회 구분 없이 교구별로 통합 진행됩니다. 이번 바자회는 외부인의 물품 공급 없이 영락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아나바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여전

도회 회원들이 선교부흥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자회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매년 열렸던 선교부흥회, 수요1부기도회, 학원선교대회가 올해도 진행됩니다. 올해 선교특강은 해외선교와 문화선교를 주제로 다뤄집니다. 아울러 농어촌 목회자, 군종목사, 해외선교 모임 등 다양한 소그룹 모임도 함께 열립니다.

선교부흥회 - 선교부흥회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매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강사로는 남서울은 혜교회 원로목사이며 현재 밀알복지재단 이사장과 학교법인 밀알학원 이사장을 맡고 계신 홍정길 목사가 강단에 서십니다.



홍정길 목사

수요1부 기도회 - 16일(수)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열리는 수요1부 기도회 강사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이신 노영상 목사입니다.



노영상 목사

학원선교대회 - 학원선교대회는 13일(선교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학교선교대회 강사는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이자 교목실장을 맡고 계신 김회권 목사입니다.



김회권 목사

김회권 목사는 한국구약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학원 선교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예배 순서에 특송과 간증이 추가되어 영락교회 산하 기독교학교의 교목과 교사, 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교특강 - 17일(목) 1시에는 해외선교와 문화선교를 주제로 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외선교 강사로는 LA 미주 기독교방송 대표 남철우 목사가 참여하고, 문화선교 강사로는



남철우 목사

우리 교회 선교부 전담인 조두형 목사가 강의를 맡습니다. 특강 후에는 농어촌 목회자 모임, 군중 목사 모임, 해외선교 모임이 이어지며, 해외선교 모임에는 이스라엘에서 사역 중인 김정혁 선교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2024 선교대회의 다양한 일정은 영락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선교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구분	오전	오후	저녁
10/1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선교축제 특별금요기도회 (19:30~22:00, 베다니홀) 뮤지컬 "음-하늘진주"
10/1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예배팀 제1회 외국인 유학생 사역자 만남의 날(10:00~20:00) 문화선교축제 젊은이를 위한 공연(15:30~18:00, 베다니홀) 뮤지컬 "음-하늘진주" 		
10/13(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교주일 마당행사(09:0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예배 연합예배 (14:0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선교대회(찬양예배) 강사 김회권 목사
10/1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1부 기도회(10:30~11:30 본당) 강사 노영상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교부흥회(본당 19:00~20:00) 주강사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0/1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교특강(13:30~17:00) 남철우 목사 ■ 조두형 목사 선교분야 모임(농어촌/군/해외) 	
10/18(금)			
10/23(수), 10/25(금)	영락 만(남)나(눔)바자회		

제공 선교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 진승학원



이재성, 박나래 집사 _ 청년부 꿈꾸는땅

인도네시아 바탐의 교육사역 중심지, 진승학원과의 첫 만남

청년부 하기선교 준비로 분주하여 다른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할 때, 청년부 예배 중에 보게 된 해외의료선교 홍보에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의료선교뿐만 아니라 문화사역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그 사역지가 인도네시아의 진승학원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진승학원은 특별한 사연을 가진 학교입니다. 2004년 8월 4일, 영락교회 중등부 단기선교 도중 순교한 진우와 승구 군을 기리기 위해, '뚜나스 baru(새싹)'였던 기존의 학교 명을 두 사람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진승학원'으로 변경하

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진승중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진승학원은 현재 싱가포르 한인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김규태, 신수연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며, 진승중학교에는 774명, 진승고등학교에는 458명의 학생이 공부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승학교를 향한 기대감과 설렘을 안고 단원들과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스했던 사역 현장

이번 사역은 56명의 의료선교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박용준 지도 목사님, 25명의 의료사역팀과 30명의 문화사역팀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 바탐 진승학원. 진승학원은 기독교 교육이념의 실천 현장으로 자리잡았다.



이 함께했습니다. 사역은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K-ME(한국 선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진승학원의 강당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전통춤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큰 함성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은혜로운 채플 시간이 끝난 후, 강당은 의료사역 장소, 운동장과 1층 교실은 문화사역 장소가 되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전통 게임을 즐기고, 직접 만든 떡볶이, 호떡, 팝콘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고 이름을 부르며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평소 학교에서 근무하며 만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따뜻한 눈빛을 주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 믿으며

시작했지만, 점점 감사가 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승학원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대하면서 제 일상이 주님이 주신 사역지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락 모든 세대의 협력으로 선을 이루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영락 모든 세대의 협력이었습니다. 덩고 습한 날씨 속에도 묵묵히 술선수범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비롯한 장년 선교단원분들은 덩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술선수범하며,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청년 단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격려 덕분에 우리 청년 단원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주시는 헌신을 본받아 더욱 힘을 내어 사역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단원들 간에 사랑과 웃음이 넘쳤고, 청소년, 청년, 장년이 함께 협력하여 한마음으로 사역을 이루는



지난 9월 추석 연휴 기간 56명의 의료선교단원이 인도네시아 바탐 진승학원을 방문, 현지에서 다양한 의료사역과 문화선교 이벤트를 진행했다.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대와 세대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교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진승학원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이번 선교에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냉랭해질 때마다 이번 선교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진승학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남**

주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온 정진우, 이승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순직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리게 하소서
진우 승구의 신앙 정신을 기려 이 건물을 '진승관'으로 명하고 이 학교를 '진승중학교'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2004년 11월 30일 교육재단 새싹

영락교회, 싱가포르한인교회

- 진승중학교 동판 중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김만혁 전도사 _ 마포·영등포교구, 사회봉사부, IT미디어부



20대 초반에 품었던 호기로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힘든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믿지 않던 부모님 아래서 짧은 신앙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자를 준비하게 하셨으며, 여러 번의 비전트립을 통해 선교사의 길을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품었던 호기로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곳에 가겠습니다... 부룬디로 견습 선교

대부분은 졸업 후에 선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두고 많이 고민하는 신대원 3학년, 저는 그 시기에 견습 선교를 나가기로 결

심했습니다. 선교지 어느 곳이든 함께 동역할 사역자가 부족하고, 선교사님들이 지내는 환경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 품었던 이 생각을 다시 떠올리며 먼 아프리카 '부룬디'로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크기의 4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인 부룬디는 2008년까지 민족 간 내전을 겪었으며, 여전히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부정부패가 많은 곳입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40달러, 한화로 약 32만 원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과는 약 150배,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나라 남아공과도 28배, 케냐와는 9배 정도 차이 나는 수준입니다(2022년 KOSIS 통계).



사진제공 필자

부룬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욱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위한 직업 훈련과 정착 사역, 지역 교회와 함께 말씀 사역과 목회자 교육, 긴급 구호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웃음 잃지 않는 그들... 내 삶엔 감사가 없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부룬디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삶을 비판하거나 우울해하고 힘겨워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부룬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한화로 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말라리아 약이 없어 주님 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

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지 못해 아쉬워하며 분내고, 때론 삶을 비판했던 저의 옛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부룬디의 가난한 이들의 삶을 보며, 과연 제가 그들과 같은 처지에 살게 된다면 저렇게 웃고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부끄러워졌습니다.

네가 강도당한 이의 진정한 이웃이나

이런 저에게 선교사님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들이 가던 길을 충실히 걸어갔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은 그들의 계획 속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잠시 멈추고 방향을 바꿔,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정, 마음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며, 우리도 것처럼 해야한다고

“

부룬디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하늘 아래 진정한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지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선교지의 삶에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쓰지만,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가 본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인처럼 잠시 자신의 길을 멈추고, 선교지의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재정, 마음을 나눕니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멈추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교란 결국 나의 길을 잠시 멈추고 강도 만난 이들을 위해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던 길 멈추고 이웃 돌볼 때 주님 다시 일하셔

저는 특별한 재능도 능력도 많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제게 주신 선교사님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목사장이나 레위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대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과 더 비슷한 저였습니다. 그렇게 제 갈 길 바쁘게 살아왔던 저였지만, 이제는 저도 사마리아인처럼 발을 멈추어, 부룬디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는 저에게 성장의 기회였고, 그동안 저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웃을 마주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품었던, '가장 힘든 곳에 보내달라'라는 호기로운 기도에 주님은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웃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에 풀이 죽을 때면, 밝게 웃는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잠시 웃게 됩니다.

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의 작은 나라 부룬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우리는 이제 이웃을 넘어 하늘 아래 진정한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려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웃을 돌볼 때, 주님은 다시금 일하시고 제 길의 방향을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으로 인해 웃고 함께 기뻐하는 하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남**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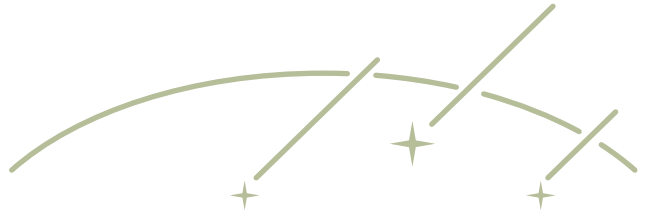
갑작스러운 시련과 신앙의 시작

6년 전, 제 가정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제 마음이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을 때, 멀리 타국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힘들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여겼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다

비록 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믿음이 없는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 광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1단계 수료했고, 다시 여건이 허락되어 지난봄에 3단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노방전도 훈련을 나갔던 날 탑골공원에서 80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해드린 후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다음날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주일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뽀엘 앞에서 기다리던 중, 어르신이 정말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집사님께 처음 왔다고 말씀하시며 예배당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2주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어르신은 이제 혼자 예배드려도 된다고 자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예배드리고 간다며 전화를 주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서툴고, 많은 시선을 받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전도를 나갈 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함께 하심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실 친정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훈련을 시작했지만, 아직 부모님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체험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힘든 곳 낮은 곳을 보게 하시고, 그곳을 긍휼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다시 회개하여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가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겐 유익이라" 하신 말씀처럼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니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어떠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창조주이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남**



김경미 성도
강서·구로·양천교구



영락의 미래 One Team '무력무력'

22회 영락교회 축구교실 제주 여름캠프 동행기

지난 8월 6일, 무더위 속에서 하얀색 영락FC 유니폼을 입은 어린이들이 김포공항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영락교회 축구교실 여름캠프'가 창단 25주년을 기념해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락FC는 김형태 안수집사님이 2000년 창단한 축구교실로, 25년간 매주 토요일 대광학교 운동장에서 유·초·소년부 어린이들에게 2시간씩 축구 훈련을 제공하며 신앙과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 집사님과 함께 한국 아동복지협회 서울시 초·중등부 대표팀 감독인 김배일 감독님이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성도
서대문·은평교구
유년부 김재운 아빠



42명의 아이와 19명의 스태프... 예상외로 타이트한 일정

축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2학년 첫째 아이가 처음으로 캠프에 참여하게 되어 저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 복직 전에 추억을 쌓고자 캠프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간식이나 챙겨주고 필요한 걸 도와드리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캠프는 생각보다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축구교실이 선수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앙과 체력을 함께 기르는 프로그램이라 여유로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캠프 일정표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아침 식사 후 오전 훈련, 점심 식사 후 생태학습, 저녁 식사 후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훈련까지 마치고 자정에 취침하는 일정에 꽤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42명의 아이와 19명의 스태프가 함께 움직이는 만큼, 캠프는 매우 조직적이

었습니다.

제주도 숙소에서 드린 도착 예배로 시작된 캠프의 셋째 날에는 제주도축구협회가 주최한 '제3회 한라배 유소년 축구대회'에 특별팀으로 참가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첫날부터 야간 훈련이 이어졌고, 아이들은 학년에 따라 팀을 나누어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축구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부터 이미 경험이 많은 아이들까지 모두 감독님들의 지도 아래 열심히 임했습니다.

1·2학년 팀 감독으로 깜짝 데뷔

훈련 중 김형태 감독님께서 다가오셔서 "1·2학년 팀 감독을 맡아달라" 하셨을 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단지 축구를 좋아했을 뿐,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진심이셨고, 결국 1·2학년 팀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10명 중 5명은 축구를 처음 해보는 아이들이었기에 기초적인 패스부터 가르쳤습니다. 공을 제대로 차지 못하던 아이들이 마지막 훈련에서는 골대에 슈팅하는 법을 배울 정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틀 동안 아이들은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힘들어 주저앉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팀 대부분은 축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었지만, 전혀 주눅이 들지 않은 우리 아이들은 더 큰 소리로 서로 응원했습니다. 결과는 0:9, 0:13으로 졌지만, 그들이 보여준 열정은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 아이들은 제주도 바다에서 잠시 휴식을 즐겼습니다. 땀에 젖은 축구유니폼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며 모래사장에서 뒹구는 모습은 귀염둥이 어린이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동안 베테랑 스태프들

이 바비큐를 준비했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아침 6시에 기상해 훈련을 마친 후, 김포 공항에서 신주현 목사님의 기도로 캠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품에 안기며 캠프에서의 큰 경험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특히 1·2학년 10명의 아이 - 원준이, 세웅이, 하준이, 태리, 태후, 윤우, 세호, 강이, 하빈이, 재윤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었으며, 그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원팀 원스피릿 원골'

두 분 감독님 덕분에 평범한 학부모였던 제가 감독 역할을 맡으며 지도자의 수고를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 유니폼을 빨고, 낮에는 먹을 것을 챙겨주신 김준권, 안태정, 이결파, 김천경 집사님,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며 응원해 주신 박근우, 표승완, 장아영, 남승경, 현성은 집사님, 고생 많으셨고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어 아이들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주시는 원종석 집사님, 아이들을 지도하며 도와준 대학생 선배 하영이와 재현이, 그리고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주신 신주현 목사님과 김혜민, 이동현, 양장엽 전도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축구캠프의 주제인 'One Team, One Spirit, One Goal'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즐겁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영락교회 축구 교실에 더 많은 아이가 참여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One Team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영락교회 축구교실 파이팅! **만남**

3040 연합, 리더십보다 팔로워십

2024년 8월, 저는 청년부를 졸업한 지 5년 만에 다시 하기선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와 청년선교회가 천진중앙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연합하여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시절, 매년 참여했던 하기선교봉사는 언제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컸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게 될지,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설렘을 가득 품고, 책임감 있게 마음을 다해 열정을 쏟아붓자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저 함께한 것뿐인데... 팔로워십 가치 눈떠

제 기대와는 달리 선교 워크숍에서 다소 실망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제 역할은 보조 선생님이었고, 부담도 크지 않은 지원 역할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졌던 '책임 있게 열정을 쏟아 보자'라는 결심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한발 물러선 채 살짝 발을 담그고 있는 느낌이었죠. 청년선교회가 뒤늦게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부 후배들이 주도적으로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 상황은 이해되었지만, 하선 때마다 리더의 자리에서 계획하고 이끌곤 했던 저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황성수 집사
청년선교회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라” 많은 것을 하려는 것보다, 그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서서히 바뀌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 청년부 후배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후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후배들의 리더십 속에 녹아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어라’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를 통해 후배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지원자 있을 때 리더십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어떤 역할로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사람만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후배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진행된 청년부 하기선교 어린이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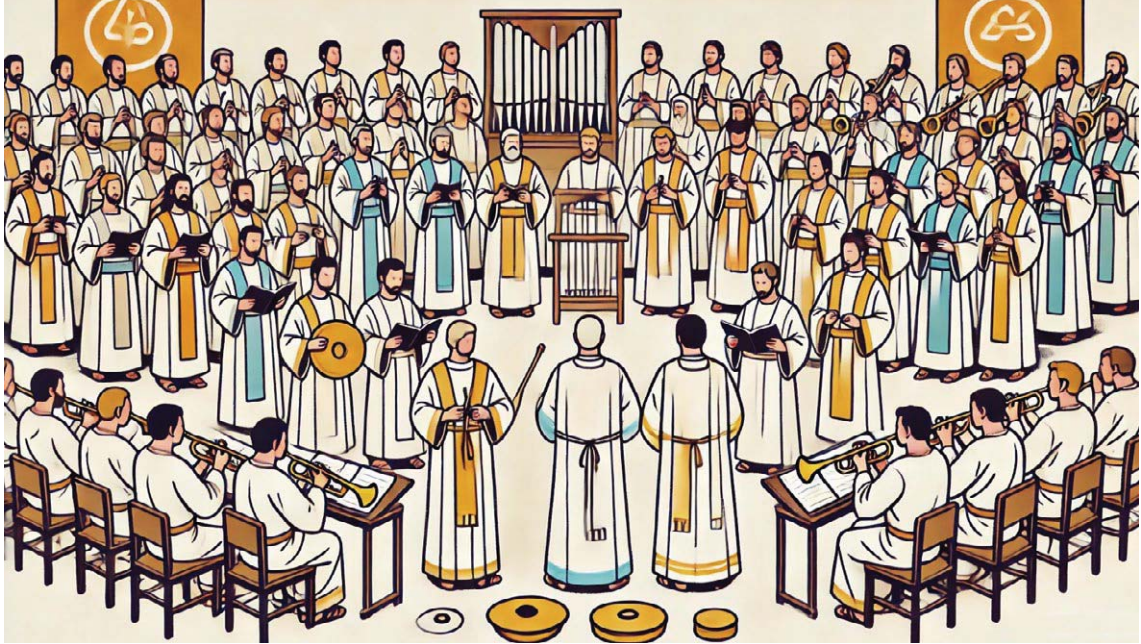
때로는 모세처럼 부족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저에게도 이번 하기선교봉사에서 이전에는 경험했던 리더십이 아닌, 겸손하게 지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팔로워십'을 배우도록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며 한 청년부 후배가 전해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친구는 "멀게만 느껴졌던 청년선교회 선배들이 이제는 가까운 형, 누나, 오빠, 언니가 되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신 긍정적인 연합의 열매를 보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하기선교봉사를 통해 제게 주신 가장 큰 교훈은 연합을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리더십보다는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팔로워십'이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지원자가 있을 때 비로소 리더십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3040세대가 연합할 때도 누군가 앞서 이끌어 나갈 때 서로 지원하고 돕는 든든한 팔로워십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하나 된 지체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며, 함께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3040세대를 위해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남**



예배 음악 솔로몬 시대 자리잡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치고 난 후 언약궤를 다윗 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역대하 5:2)

솔로몬의 법궤 영접식과 찬양의 전통

당시 찬양대장은 아삽이었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의 선견자로서(역대상 25:5) 관악대장을 맡았으며, 여두둔은 수금을 연주하며 신령한 노래를 이끄는(역대상 25:3) 현악대장 역할을 했다. 이들이 제단 동쪽에서 찬양했던 것은 현재 교회에서 찬양대가 그 위치에 서는 전통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은 찬양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임을 상징한다. 당시의 찬양대원들은 ‘노

래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으로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다윗이 시작한 찬양은 큰 축복을 불러왔으며(역대하 8장 이하), 찬양의 전통과 예법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솔로몬 시대에는 예배 음악이 정성스럽게 사용되며 그 전통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솔로몬은 시와 음악을 사랑하여 수천 개의 잠언과 시를 남겼다(열왕기상 4:32).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 찬양의 직분을

맡기고 매일의 일과로 찬송을 정해 놓아, 찬양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역대하 9:14). 하지만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이방 음악의 영향을 받았고, 이는 결국 예배 음악이 타락하는 결과를 초래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찬양의 전통 이어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기악 음악은 많이 쇠퇴했지만, 회당에서 불려진 낭송적인 노래의 형식이 발전했다. 이 방식은 이후 신약 시대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전신이 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전통이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도 노래하는 자들, 특히 아삽의 후손 128명(에스라 2:41)과 노래하는 사람들 200명(에스라 2:65)이 있었는데 기록을 보면, 포로 기간 동안에도 찬양의 전통이 계속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느헤미야 12:27~43)”. 이는 찬양이 구약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기록(느헤미야 12:24)은 다윗이 만든 찬양대의 전통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과 함께한 찬양의 역사

또한, 에스라는 성전 재건 과정에서 흩어졌던 레위 성가대원들을 다시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다(에스라 3:8~13). 히스기야 왕 때에도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의 명령에 따라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찬양을 담당했다(역대하 29:20~36).

여호사밧 왕은 암몬 연합군에 대항하여 찬양대를 앞세워 승리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 브라가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라 부르게 되었다(역대하 20:1~30). 기드온의 300 용사가 나팔을 불며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던 역사(사사기 7장)도 음악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록들은 찬양대원들이 그들의 역할에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만남**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

건축, 삶을 담아내는 그릇



통영 국제음악당

건축은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그 범위는 개인 주택부터 도시, 국가에 이르기까지 넓다. 그래서 건축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렵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은 모두 건축의 결과물임에도, 많은 사람은 건축에 대해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건축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기억의 지도 위에 새 기억을 덧입히기

영화 <건축학개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축과 건축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과거에 살던 동네를 스케치하는 장면은 건축이 기억을

담아내는 행위임을 상징한다. ‘프루스트 맵핑(Proust Mapping)’은 ‘기억의 지도 만들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기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온 이 용어는, 특정 감각이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설명한다. 건축도 이처럼 기존의 기억 위에 새로운 기억을 덧입히는 과정이다.

인간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衣食住)’ 중 ‘住’는 우리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쉼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우리의 이야기가



오동희 장로
성남·분당교구
시설관리부장
(주)간삼건축 상임고문

담기는 장소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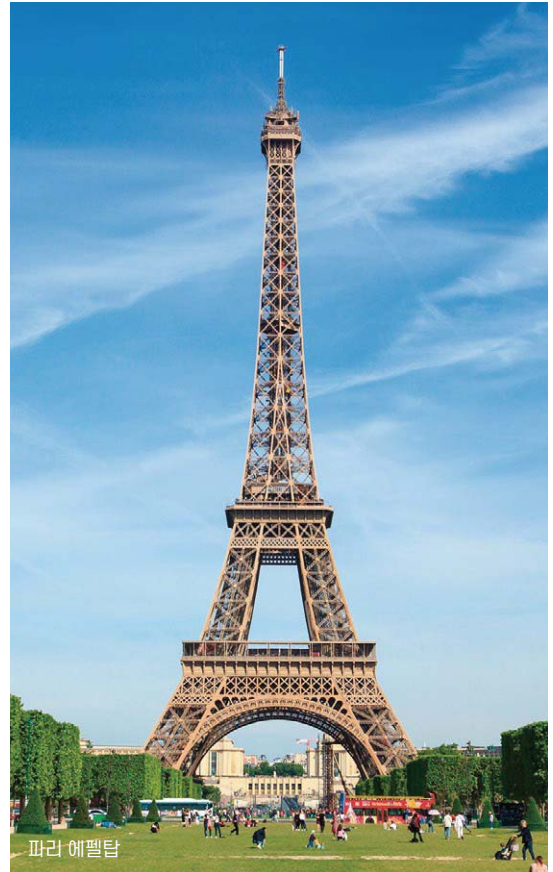
건축(Archi + tecture) = 가장 으뜸가는 기술

‘건축’이란 무언가를 세우고 쌓아서 만드는 일을 뜻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도 사실 밥을 짓는 것처럼, 기존의 재료가 변화되어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Architecture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Archi’(으뜸가는)와 ‘Tecture’(구조 기술)의 결합으로, 고대부터 기술의 정점으로 여겨졌다.

건축은 물리적 공간에 역사적 경험, 문화적 특성, 그리고 인간의 직관을 담아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위이다. 건축은 인문학, 공학, 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 건축과 인문학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설계와 디자인’이 있고, 건축과 공학이 만나는 곳에서는 ‘건축공학’과 ‘구조공학’이 있다. 또한, 도시와 관련된 분야로는 ‘도시설계’ ‘조경’ ‘도시공학’ ‘교통’ ‘환경’ 등이 있다.

건축가는 마에스트로... 세상을 바꾸는 좋은 건축

건축가는 설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생각을 실체화하는 창조적 작업을 하므로, 예술가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자신의 작업을 예술적인 창작 행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건축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건축가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이끌며,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를 보면, 건축가를 중심으로 구조, 기계설비, 전기, 엘리베이터,



커튼 전문가, 풍동실험 등 셀 수없이 많은 전문가가 협력하여 설계를 완성했다.

건축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중을 위한 건축도 설계하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브라질의 쿠리치바라는 도시는 건축가 출신의 시장이 30년간 봉직하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한 도시로,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성공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한 ‘전용 차선제’와 노무현 대통령의 ‘희망의 도서관’ 프로젝트도 이 도시에서 영감을 받아 도입된 것이다. 이 건축가는 좋은 건축이 사회



바로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포항 포스코역사관

를 변화시키고,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시도하여 쿠리치바를 평등하고 희망적인 도시로 변모시켰다.

스토리가 담긴 건축, 미래를 창조하다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매일 새로운 건축물과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여행은 두말할 것도 없이 건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여행 중에 만나는 건축물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건축은 ‘이야기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 자체가 미래를 향한 도전이자 예술이다. 또한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원래 낡은 공장이었지만 개조를 통해 지금은 런던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파리 정도(定都)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에펠탑은 230년이 흘렀는데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이러한 도전들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된다.

창의적인 건축은 고정된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건축가는 늘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설계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포스코역사관은 일반적인 박물관과 달리 창문이 없고, 유리로 둘러싸여 철의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박물관으로 설계되었다. 또, 포스코센터는 아주 획기적으로 새로운 디자인 개념과 인텔리젠트 빌딩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혁신적인 건축물이다. 평소에는 로비로 사용되지만, 주말에는 콘서트홀로 탈바꿈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전천후 공간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건축물이 있지만, 그중 세상을 바꾸는 건축은 우리들의 기억의 지도, 프루스트 효과를 만들어 낸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 추억과 그리움이 있듯이, 건축물도 우리의 기억을 담고 있다. 광장과 길, 건축물, 만나는 사람들, 음악 소리, 시간마다 들려오는 벨 소리, 그리고 눈이 내리던 기억들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건축이 된다. 이처럼 소중한 기억으로 채워진 우리는 모두 건축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채우면, 그 자체로 좋은 건축을 이루어낼 수 있다. **만남**



영락시어터 10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10월 6일 첫 주일은 북한선교부 행사로 영화 상영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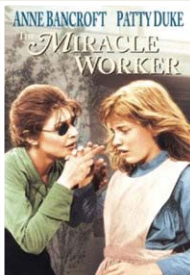


가디언의 전설 (Legend of the Guardians, 2010) **ALL** 96분

13일

감독: 잭 스나이더 출연: 헬렌 미렌, 제프리 러쉬, 짐 스테게스, 휴고 위빙

하늘 위에는 인간들이 모르는 거대한 왕국이 존재하고, 그곳에서는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사악한 부영이들이 왕국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막는 전설적인 수호자들, 가디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왕국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운둔처인 가홀 나무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왕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 소렌은 이 전설을 굳게 믿고 있으며, 언젠가는 자신도 가디언들과 함께 싸우는 영웅이 되기를 꿈꿉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그들과 함께 이 위대한 전투에 참여하여 정의를 지키는 모험을 동경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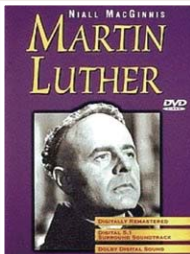


미라클 워커 (The Miracle Worker, 1962) **ALL** 106분

20일

감독: 아서 펜 출연: 앤 밴크로프트, 패티 듀크

어린 헬렌 켈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헬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 가족의 동정 속에서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마치 짐승처럼 자라납니다. 말도, 소통도 할 수 없는 헬렌은 좌절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고, 가족조차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렌의 삶은 그녀의 가정교사로 온 애니 설리번과의 만남으로 급격히 변화합니다. 설리번은 강인한 의지와 헬렌에 대한 끝없는 인내심으로 헬렌에게 언어의 세계를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설리번이 헬렌과 함께한 2주간의 집중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마틴 루터 (Martin Luther, 1953) **ALL** 102분

27일

감독: 어빙 피첵 출연: 가이 버니, 나이얼 맥기니스, 어빙 피첵

16세기 초 종교 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입니다. 당시 유럽은 미신과 두려움이 만연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악마와 사탄의 세력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가르치며, 영원한 형벌을 피하려면 무조건적인 복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돈을 받고 구원을 약속하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1505년, 젊은 법학도 마틴 루터는 마음속 깊은 공허함과 신앙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어, 결국 4년간 공부해온 법학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택하게 되는데... 루터가 겪는 내적 갈등과 종교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그의 용기를 집중 조명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암 진단을 마주하다

오랜 시간 절박노 증상을 겪으며, 집 근처 비뇨기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이 나아지지만, 끊으면 다시 돌아온 했습니다. 마침 46년을 살던 갈현동이 재개발에 들어가는 바람에 딸이 사는 쌍문동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비뇨기과진료를 받았을 때, 이전과는 달리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요구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과 함께 PSA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 암의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MRI 촬영과 혈액 재검사를 받은 결과, 암 가능성 40%에 해당하는 4등급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조직검사를 받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40%의 가능성이 암이라 했지만, 저는 나머지 60%에 희망을 두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다

2023년 4월 17일, 조직 검사 결과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간 멍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2013년 영락기도원에서 있었던 주님과와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통해,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안수집사 말씀 묵상기도 수련회에 참석하여 묵상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찬송가 311장 가사가 떠오르며,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라는 물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담대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누군가가 나를 꼭 껴안아 주는 듯한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속에 아늑하고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기도 후 찬송을 부르는 내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감동이 밀려왔고, 그로 인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감격스러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그토록 갈망하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체험이었습니다.

암진단을 받고는 10년 전 그때의 약속을 떠올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께 맡기며, 주어진 사명을 다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로 피택되며 느낀 은혜와 책임

2014년, 저는 장로로 피택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장에서 은퇴한 해로, 실업자였고 교회에서도 맡은 직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장로로 택하신 것은 주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기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장로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열성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장로로 피택되면서, 저는 제 과거의 죄를 하나하나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어렵게 마련해 주신 현금의 일부를 사용한 기억, 이모의 돈을 훔친 일, 남에게 거짓말하고 상처를 준 일 등 수많은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와 성령님의 임재

지난 4월, 산상기도회에서 임영수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마

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도 주시지만, 동시에 피할 길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15절 말씀처럼, 저에게도 장막을 벗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웠고, 폐소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더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병을 낮게 해 달라는 기도 대신,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시편 90장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 했는데, 이제는 욕심을 부릴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회복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2023년 6월 8일, 저는 전립선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PSA 수치가 0.01로 낮아졌고, 이후에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조영리 은퇴장로
서대문·은평교구



벌레 같은 날 위해~



버트런드 러셀 깨내며 크리스천 조롱

버트런드 러셀은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할 조건을 하나 더 가진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 나 역시 음식, 취미, 환경, 놀이 등 다양한 즐거움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동시에 러셀은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글에서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비판했다. 그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저주하신 장면을 비꼬며, “소크라테스나 공자보다도 너그럽지 못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때 나는 러셀의 논리에 공감하며, 크리스천들을 조롱하곤 했다.

주말 함께할 친구 없어지자...속전속결 결혼식

이런 생각과 성취욕으로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 운동을 했고,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하고 밤늦게 까지 일했다. 주말에는 산이나 바다로 떠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하면서 나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객지에서 홀로 사는 내가 갑자기 결혼을 준비하게 되니, 모든 것을 대충대충 준비하게 되었다. 아내 될 사람이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자고 해서 그냥 그리 하자고 했다. 예식장을 정하고, 집을 구하고, 가구를 고르며, 예물을 준비했고, 그 와중에도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데이트를 즐기며 정신없이 준비한 끝에 만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신혼생활은 다 좋았는데 주말이 문제였다. 나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에는 다른 즐거움을 찾곤 했지만, 아내는 교회에 가자고 했다. 때로는 교회에 따라가기도 했지만, 가끔은 나의 행복 파랑새를 찾기 위해 매 주일 아내와 밀고 당기는 시간을 보냈다.

중동 파견근무 그리고 아내가 줘 준 영어성경

그 당시는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큰 돈을 벌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던 시절이었다. 현대건설에 다니던 나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이라크로 가게 되었다. 떠날 때, 아내는 영어 신약성경을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영어 공부 점 그리고 아내의 선물이기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



은태운 은퇴장로
관악·동작·금천교구



제사와 예언 등 옛날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신약성경을 다 읽은 후에는 구약성경을 보내달라고 해서 부지런히 읽었다. 알고 있는 세계사와 연관을 지으며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되었다. 구약을 다 읽은 후 다시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복음서에서 같은 사건들이 저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보고 오히려 역사적 사실로 다가왔다. 또한 각자가 다른 관점에서 본 사건이지만, 그 중심 내용은 같음을 깨달으며, 나는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게 되었다.

사울과 로마병사에서 나를 발견... 회개의 눈물

사복음서를 읽으며 점점 더 감동하던 중,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들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마치 “태운아, 태운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로 들리며 강하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의 무지하고 교만했던 죄악들이 한꺼번에 떠 올랐다. “Crucify

him! Crucify him(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중 속에서, 그를 핍박했던 로마 병사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십자가 앞에서 침을 뱉고 욕하던 행인들 속에서도 나를 발견했으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던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내 처지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이 별레 같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가슴에 벅차오르며 한없이 눈물이 흘렀다.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귀국하면 곧바로 세례를 받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세례를 받았다. 그 후로 성경을 꾸준히 읽고, 한때는 3년에 걸쳐 영어성경 전체를 필사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별레만도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만남**

소그룹 모임, 말씀이 삶 속으로...



따뜻한 봄날, 남편과 함께 제자양육 프로그램들을 살펴 보며 어떤 수업을 들을까 생각하던 중, 찬양대 선배님께서 “우리 찬양대 대원이 있는 소그룹 조가 있으니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권유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잘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누는 삶과 은혜

찬양대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많이 누렸지만, 소그룹을 통해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삶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자 더 친밀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말씀 나눔 전에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말씀 나눔 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예배 때 김운성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소그룹에서 제공하는 유인물의 질문들을 통해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말씀 안에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인물의 질문들은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주는 다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해주셨는지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설교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해 각자의 실천 목록을 작성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은 제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며 도전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4월 14일 주일 김운성 위임목사님의 ‘없는 것과 있는 것’이라는 설교를 들은 후 받은 유인물의 ‘영락교회가 가진 신앙의 장점 중에 꼭 유지,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신앙의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복음통일의 소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저와 남편은 같은 조의 집사님과 함께 북한선교학교에 신청하여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유현승 집사
강동·송파교구
시온찬양대

다른 소그룹 활동하는 남편과 대화하며 이해 넓어저

남편은 다른 소그룹에 속해 있지만, 모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설교 말씀과 각자의 소그룹 나눔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은 저에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과 삶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게 되고, 때로는 각자의 다른



관점과 이해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기회를 연습니다. 말씀을 통해 각자 깨달은 마음을 나누며 그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서로 격려하며 가정 안에서 함께 실천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눔의 시간 덕분에 남편과 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이끌고 계심을 느낍니다.

가정, 이웃,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사랑 경험

처음에는 그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소그룹에 참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그룹을 통해 말씀을 제 삶 속 깊이 넣어주셨습니다. 비록 작은

실천인 데다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가정, 이웃,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심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항상 밝게 맞아주시고 모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탁현수 목사님, 김승겸 전도사님, 박형화 장로님, 그리고 봉사해주시는 집사님,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우리 모두 일상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주어진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남**

사회봉사교육 10년 만에 재개 “사랑의 실천자로 성장하세요”



9월 7일 ~10월 5일...100여 명 수강 열기

최근 많은 성도님께서 사회봉사교육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봉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제로 2024년 영락교회 사회봉사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여 년간 중단됐던 사회봉사교육을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봉사활동을 다시 활성화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김경운 집사(동승교회), 류재룡 목사(대전한빛교회), 진영채 목사(산소망교회) 세 분의 강사가 강의해주신 이번 교육은 2주간의 실습으로 사회봉사의 기본 원리와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시 사회봉사교육을 준비하며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봉사단체가 많은 가운데, 영락교회의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침체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해체된 봉사 조직에서 헌신하던 봉사자들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침체한 이런 상황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예전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봉사부 팀장과 임원들이 워크숍을 통해 봉사활동을 다시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모여, 그 첫걸음으로 사회봉사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기존 봉사자는 지금까지의 봉사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계기를, 초심자에게는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강사 섭외, 홍보영상 제작, 교재 준비 등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8월 첫 주부터 3주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교육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관심이 없으면 어쩌지 걱정했지만, 100여 명이 넘는 성도님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셨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성도님이 고르게 관심을 보여 주셨으며, 이 소식을 들은 타 교회 성도님들도 문의하셨습니다. 그렇게 개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주엽 집사
강남교구
사회봉사부 서기



5주간 진행된 '사회봉사학교' 1기 과정은 이론과 현장학습을 곁들여 수강생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했다.

봉사와 전도 사이에서 사랑을 외치다

9월 7일 김중섭 목사님의 개강 예배로 시작된 5주간의 사회봉사교육은 '발사랑 전도' 봉사를 실천하고 계시는 동승교회 김경운 집사님의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발사랑 전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세족식을 본받아 경로당, 호스피스병원 등을 찾아 발 마사지를 통해 전도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소개와 여러 에피소드 등을 재미있게 소개해주신 강사님 덕분에 많은 성도님이 봉사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2주간 사회봉사부의 가정복지팀, 이웃섬김팀, 청소년섬김팀, 주일봉사팀, 찬양팀 등 다양한 팀에서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의 마지막 주에는 류재룡 목사님의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적 시각', 진영채 목사님의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 강의를 통해, 사회봉사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부터 실천까지를 다루는 실질적이고도 깊이 있는 강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을 소망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10여 년 만에 다시 시작된 사회봉사교육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이 영락교회, 그리고 영락교회를 넘어 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병마에 지치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눔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사랑을 실천하셨던 환경직 목사님처럼, 우리 영락교회가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넓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사회봉사교육이 하나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많은 봉사자를 배출하는 배움의 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만남**



가정, 영성의 요람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변화된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바로 기독교 영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부름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삶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강학 교수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

하나님과의 경험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 경험=하나님에 대한 지식+하나님의 사랑 경험'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련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아름다움과 지혜를 깨닫고 경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부활을 통해 사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와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각성 되어 회개하며,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영성을 깊고 넓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미리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됩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home)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를 말합니다. 가족(family)은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며, 어린이는 돌봄과 양육을 받고, 어른은 그 책임을 맡습니다. 집(house, home)은 가족이 사는 물리적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가정에서 경제적 협력, 역할 분담, 상호 돌봄, 사랑, 양육, 정서적 지지를 기대합니다.

가정도 개인처럼 성장하고 변화하며, 대체로 다섯 가지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 ① 가정의 형성: 결혼, 출산, 입양, 양육, 공동생활 ② 가정의 해체: 다툼, 이혼, 가출, 사별, 자녀 독립 ③ 가정의 회복: 용서, 화해, 연합, 재혼,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④ 가정의 성숙: 사랑의 연합과 공동의 사명 실천 ⑤ 가정의 확장: 환대, 부흥, 전도, 선교, 사회적 실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십시오.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정이 상처를 주는 곳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정은 편안하고, 안전하며, 사랑과 섬과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며 성장하는 가정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특징 ‘연합’

기독교인은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믿습니다. 부부의 연합은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라는 말씀처럼, 부모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는 연합을 목표로 합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스승과 제자 관계 모두가 진정한 연합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사랑의 열매이며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가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신명기 6장 6~7절은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가정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외, 믿음 약한 다음세대... 도전 직면한 가정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형태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가정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

의 의미만을 강조하면, 다른 형태의 가정에 속한 이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약화하는 것은 교회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가정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며, 혈연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가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기초와도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47절에서는 초대교회가 한마음으로 모여 모든 것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가정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영성으로 회복되는 가정

가정을 예수님의 뜻 안에서 회복하려면 영성이 중요합니다. 몇몇 영성가들의 가르침이 이를 잘 설명해줍니다. 마틴 루터는 가정을 영성 훈련의 장으로 강조했습니다. 수도원에서만 영성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도 영성이 자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수도원을 해체하고 수사들과 수녀들을 결혼시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

야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족이 친밀해지려면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하며, 가정 안에서도 함께하는 시간과 홀로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영적 발돋움』에서 영적 성숙이란 적대감(hostility)이 환대(hospitality)로 바뀌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손님으로 환대해야 합니다.

가정에배와 영성일기

마지막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묵상하고 영성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은 우리 가정 어디에 계셨는가?’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눌 때, 가족의 영성은 더 깊어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만남**



110살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

저는 심장내과 의사로서 하루에도 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한 세션에 3시간 동안 약 6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이는 환자 한 명당 약 3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셈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증상을 듣고, 진찰을 하고, 신속하게 처방까지 내려야 하죠. 하지만 가끔 환자들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해서, 시간을 더 들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곤 합니다. 비록 진료와는 무관하더라도 환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저 자신도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조상호 교수
서초교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얼마 전에는 70대 여성 환자분이 며느리가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또 75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가야 해. 더 살아 뭐 해. 삶이 힘들어”라며 하소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이유는 질병, 경제적 어려움, 또는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죽음을 원했다면 의사를 찾지 않았겠지요. 이런 대화를 나눈 후, 시간

이 부족해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우리는 110살까지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의학적 수명, 창세기 말씀에 근접하지만...

창세기에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창세기 6:3). 하지만 이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120세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저는 상징적으로 110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110세까지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단 한 번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정화가 필요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래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수한다면 중손자, 고손자와 같은 후손들과의 교류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큰 행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오래 살면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 과학 기술, 그리고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우주 기술의 혁신적 발전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 또한 빠르게 발전



하고 있어,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방법들이 나올 가능성이 큼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3차원 구조 분석 기술인 알파폴드(AlphaFold)의 발전은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혜택을 누리며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두 성찰 운동...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다소 주관적일 수 있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의견일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합니다. 특히,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느낀 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장수의 비결 역시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독자분들께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생각들과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10살까지 건강 장수하려면



- **질병의 조기 발견과 관리:** 많은 질병은 원인을 알기 어려우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질병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하세요.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복용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때로는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적게 먹기:** 배부르게 먹지 말고, 적당히 드세요. 수명 연장에 가장 강력한 임상 증거는 적게 먹기(小食)입니다. 신선한 음식을 먹고, 가공식품이나 오래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생:** 일상에서 몸과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청결하게 생활하고 주변도 정돈해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 **규칙적인 생활:** 충분히 수면(7~8시간)을 취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세요. 매일 할 일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편안한 마음 유지:**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걱정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지나친 불안과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 **명상과 기도:** 매일 10분씩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내면의 힘을 키우세요.
- **집중과 몰입:** 매일 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현재에 충실하며,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받아들이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50분씩, 주 5회 이상 적당한 육체 활동을 권장합니다. 야외 활동이나 집안일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심장병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여 심장병을 예방하세요. 이미 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치료나 시술, 수술 등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의 전문 분야인 관상동맥 중재술(스텐트 삽입술)은 막힌 혈관을 뚫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스데반처럼... 안수집사회 헌신합니다



207명 회원들, 교회행정·구제 사역 감당
장병 위로·하선 봉사 등 기쁨으로 실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사도행전 6:6)*

영락교회에는 묵묵히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영락교회 안수집사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자, 열두 사도는 교회 운영과 구제를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세우고, 그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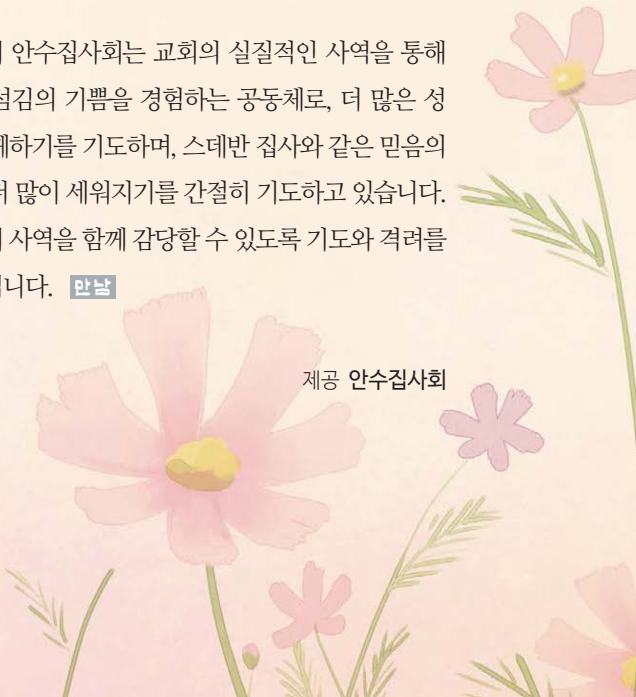
2024년 현재, 영락교회 안수집사회(회장 김금성 안수집사)는 20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 교육, 선교, 홍보, 친교 등 다양한 부서와 총무단, 서기단, 회계단, 연합사역팀이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아침 8시, 엘리관 지하 2층에서

회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섬김과 헌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수집사회는 매년 다양한 사역을 통해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전방 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5월에는 새벽 기도회 특송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섬김 사역을 했습니다. 8월에는 청년회 하기선교 봉사지역을 방문해 선교에 헌신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락교회 안수집사회는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을 통해 헌신과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더 많은 성도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스테반 집사와 같은 믿음의 일꾼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제공 안수집사회



2025 향촌직 선거 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행정장정 제34조 [향촌직 선거] ㉔항 규정과 당회결의에 따라
장로 15명과 안수집사 15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직한 선거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바랍니다.

▣ 선거일정

- ▶ 후보추천서 접수 9월 16일(월) ~ 9월 29일(주일)
- ▶ 공천후보자 기도회 10월 20일(주일) 찬양예배 후, 뽕엘
- ▶ 선거일자
본 투표는 후보를 확정된 후 2차에 걸쳐 전산개표방식 투·개표 진행
1차 투표(후보대상) : 11월 3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2차 투표(1.5배수) : 11월 10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 투표장소 50주년기념관 1층

▣ 후보의 선정

1. 장로, 안수집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를 당회에서 공천하여
선출인원(장로 15인, 안수집사 15인)의 2배수를 후보로 선정한다.
2. 2차 투표는 미 선출 인원의 1.5배수로 실시한다.

▣ 장로의 선택 (총회헌법 2편 제41조)

장로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안수집사의 선택 (총회헌법 2편 제54조)

집사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영락교회 선거집행위원회 위원장 심재수 장로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지체들...전교인 만남주일

목양부

9월의 마지막 주일이었던 지난 29일 성도들은 '전교인 만남 주일'로 지키며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쁨과 은혜를 나누었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갈라디아서 6:11~16)란 제목의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성도의 궁극적 만남은 천국에서 주님과와의 만남"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만남주일 메시지를 선포했다.

예전 간증주일의 전통과 의미를 계승한 만남주일을 맞아 봉사관 앞 교회 마당과 베다니광장에는 교구별로 만남의 장소가 마련됐다. 교구별 부스마다 구역장과 남녀선교회 지회장을 비롯한 봉사자들이 구역 식구들을 반갑게 맞이했으며 서로가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다과를 나누며 정겨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성도들은 교구 교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



께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교구별 부스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한 3040 젊은 부부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으며 50주년기념관 앞에는 청년부 부스도 마련되어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했다.

평생대학, 3년 만의 가을소풍

친교부

우리 교회를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신앙유산을 전수하며 교제를 나누는 친교부(부장 양성환 장로) 산하 평생대학의 가을소풍이



지난 9월 26일(목)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렸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미뤄 오다가 3년 만에 진행된 이번 소풍에는 평생대학 학생 820명이 참석했다. 당일 오전 8시 본당에서 경건회를 드린 후 각 반별로 22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소풍 장소로 향했다. 어르신들은 점심식사 후 장미공원에서 사진 촬영, 놀이기구와 곤돌라 탑승, 공연관람 등으로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 이날 소풍에는 청년 봉사자들이 대거 도움에 나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했다.

교회학교, 헌신과 비전을 새롭게 다짐하다

지난 8월 31일(토), 서울노회 미래세대부와 본 교회 교육부 주최로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교회학교 교사위로회와 교육부 하반기 기도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전적으로 교회학교 교사와 각 부서의 교역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자리였다.

▶ "여러분이 위대한 주연"...서울노회, 2024 교회학교 교사위로회

교회학교 교사위로회는 '축복을 유통하는 교사'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행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노회 미래세대부(부장 김운성 목사)가 주최하고, 서울노회 교회학교연합회(회장 이강욱 집사)가 주관했다. 이날 장경철 교수(서울여대 기독교학과)



는 '하나님의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장 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아름답고 위대한 주연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교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

라 위대한 조연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했다. 김운성 목사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으로 교사들을 위로했다.

▶ 교육부 하반기 기도회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우리 교회 교육부(부장 박홍준 장로) 주최로 '교육부 하반기 기도회'가 열렸다. 이 기도회는 교육부 각 부서의 교역자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교육부 표어인 "경계를 넘어, 새로운 땅에 도전하라"(사사기 1:1~2)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방덕중 목사(교육부 전담)는 참석자들에게 "하반기 사역 가운데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자"라고 강조하며,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힘을 얻어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기도회에서는 상반기 사역을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하반기 사역 계획이 공유되었다. 교육부는 각 부서의 성장과 신앙 연계를 위한 2025년 로드맵을 강조하며, 진급 부서 간의 협력과 성장을 위한 중점 기도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수상자 시상식과 시연회도 진행됐다.

전국대회 아동부 수상자 명단

- 유년부
 - 최아영(글짓기): 대상
- 초등부
 - 김소윤(영어성경암송): 동상
- 소년부
 - 임예준(성경암송): 은상
 - 이하울(영어성경암송): 은상
 - 정유진(영어성경암송): 동상
 - 빙서윤(성경고사): 동상

청년선교의 황금어장...연무대 군인교회 진중 세례

선교부

선교부(부장 김재완 장로)는 지난 9월 28일 (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영내에 있는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을 거행했다. 1,000여명의 훈련병이 세례를 받은 이번 진중 세례에는 김운성 위임목사를 비롯한 12명의 목사가 집례 위원으로 참석했고, 본 교회에서는 은퇴 및 시무장으로 43명을 비롯해 여전도회와 남선교회, 안수집사회 회원 등 180명의 성도가 참여했다. 총회 군선교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운성 목사는 '새로움으로 도약하라(고린도후서 5:17)'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례를 통해 과거의 삶을 뒤로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다"면서 "세례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새로운 축복의 출발점"이라며 장병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전쟁 중이었던 지난 1952년 천막 교회로 출발한 연무대 군인교회는 1974년에 건축된 현대식 예배당을 거쳐 2019년 5천여 명 수용 규모의 현재 예배당을 헌당했다. 연무대 군인교회에



서 열리는 진중 세례를 통해 매년 3만여 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 이번으로 제634차를 맞이한 연무대 군인교회의 진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군문에서 축복 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이자 청년선교의 황금어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영락 여전도회가 개척한 장석교회, 창립 70주년 맞아

영락교회 창립 초창기였던 지난 1954년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개척했던 장석교회(이승현 목사 시무)가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여 장석교회는 지난 8월 15일(목) 자치기관 연합수련회를 열어 70년 전 첫걸음에 힘을 실어준 영락교회 여전



도회에 감사패를 전달했고, 여전도회를 대표하여 제1여전도회 회장 장은희 권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1954년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한국 기독교 선교 70주년' 기념사업으로 '교회 세우기 운동'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여전도회는 한국전쟁 휴전 직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교회 지역이었던 석관동, 장위동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여전도회는 본 교회 소속이었던 김평 전도사를 파송해 1954년 10월 23일 장석교회의 전신인 석관동교회를 설립했고, 10평 남짓한 동네 사랑방으로 시작한 장석교회는 현재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장로교회로 성장해 지역 복음화를 이끌고 있다. 이승현 목사는 장석교회가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2여전도회, 동부전선 최전방 천봉교회 봉헌감사예배

제2여전도회(회장 고은수 권사)가 건축 후원한 강원도 양구 육군21사단 66여단의 여단교회인 천봉교회(군목 장성준 목사 시무) 봉헌감사예배가 지난 9월 12일(목) 양구 현지에서 있었다. 이날 봉헌감사예배에는 김운성 위임목사, 조두형 선교전담목사, 여전도회 실행위원 및 지회장,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원 80여 명이 참석했고 100여명의 장병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설교에서 "천봉교회가 은혜로운 군생활의 기초가 되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인물이 배출되는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동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21사단(일명 백두산부대)은 사단



장을 위시하여 믿음의 지휘관들이 함께하는 사단이다. 천봉교회는 이번 증축공사를 통해 기존 100여 명 정도의 수용 규모에서 2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2025 교회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채택

제48회 정책당회

교회의 현재 사역을 점검하고 향후 사역 비전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제48회 정책당회가 지난 9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 강원도 속초 설악산수양관과 추양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당회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코로나 이후 계속 위축되는 한국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 영적인 회복을 추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 예배 회복과 미래 교회를 위한 영적 재구성의 추진을 중점 추진사역으로 밝히며, 영락교회가 교계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헌신에 용기 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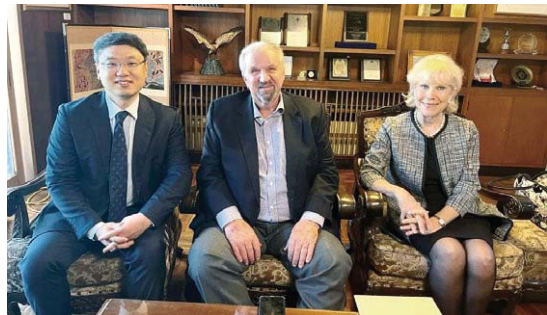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2025년은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80주년기념사업과 노후화된 교회 시설 개선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기를 당부했다.

한편 당회는 2025년도 교회표어를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출애굽기 3:5,10)'로 채택했다. 이 표어에는 80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는 교회, 사명을 향해 비상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제월드비전 마릴리 피어스 던커 여사, 본 교회 방문

월드비전

월드비전 설립자 밥 피어스 목사(1914~1978)의 장녀인 마릴리 피어스 던커 여사와 에드거 산도발 미국월드비전 회장 등 국제월드비전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2일과 29일(주일) 양일에 걸쳐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전 세계 복음주의권 교회들의 선교 대회인 '제4차 로잔대회'(9/22~28, 인천 송도에서 개최)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국제월드비전 관계자들의 본 교회 방문에는 한국월드비전 조명환 회장과 권오진 목사가 동행했다. 월드비전 공동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가 시무했던 영락교회를 방문한 이들은 주일 3부 예배 참석과 한경직목사기념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미국월드비전 친선대사인 마릴리 피어스 던커 여사는 29일 3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통해 자신의 선친과 한경직 목사의 평생에 걸친 유대 관계를 회고하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지금의 월드비전을 있게 한 원동력"이



라며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과 전쟁미망인들을 돕고자 시작된 월드비전은 현재 100여 개 회원국을 둔 세계 최대 국제구호개발 NGO로 성장했다. 사진은 한경직목사기념관을 방문한 마릴리 피어스 던커 여사 내외.

사회복지사업 85주년, 재단창립 67주년 기념 감사예배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 85주년, 재단창립 67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7일(금) 경기도 하남시 영락경로원에서 창립



67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직원 영성수련 행사를 가졌다. 영성수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1부 순서에서는 '행복한 복지사역을 위한 영성생활 길잡이'라는 주제로 대전 대덕교회 위임목사인 유재경 목사가 강의를 펼쳤으며, 이어 드려진 창립 67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는 김운성 위임목사가 '충만한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에는 영락사회복지재단 장기근속 직원 표창과 복지시설 후원자 및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후 영락경로원 잔디광장에서는 참석한 교회 관계자, 경로원 어르신, 직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친교의 자리가 펼쳐졌다.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위·수탁 협약 체결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지난 9월 6일(금)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현재)와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가칭·사진 오른쪽 조감도)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기간: 24. 9. 10~29. 9. 9)을 체결했다. 박홍준 재단 이사장은 지난 60여 년 동안 하남시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펼친 노인복지사업 경험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세대간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자발적 사



회참여 프로그램, 시를 활용한 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영등포구로부터 위탁받은 영중종합사회복지관과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에 이르기까지 시대 환경에 맞는 복지사역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예장 통합 제109회 총회

영락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9회 총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에스겔 37:14, 사도행전 9:31)를 주제로 지난 9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경남 창원 양곡교회(장형록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전국 69개 노회에서 목사 총대 558명과 장로 총대 621명, 총 1179명의 총대가 참석한 이번 총회는 24일 오후 2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사흘간에 걸쳐 교단이 직면한 현안들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109회 총회장에 직전 108회기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김영걸 목사(포항동부교회)를 추대했으며 목사 부총회장에 정훈 목사(여수노회 여천교회), 장로 부총회장에 윤한진 장로(서울 서북노회 한소망교회)를 선출했다.

김영걸 신임 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교단이 현재 처한 어



사진 : 한국기독교공보

려움을 열거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한국교회를 세워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총회는 내년 가을에 열리는 제110회 정기총회를 영락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제4차 로잔대회

로잔운동 50주년을 기념하는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지난 9월 22일(주일)부터 28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02개 국가에서 5천 3백여 명의

복음주의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5천여 명의 선교사역자들이 참여했다. 폐막일인 28일에는 제4차 로잔대회 성과를 결산하는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공동의 신념을 확인했으며, 반 기독교적 물결이 거세게 밀려드는 가운데 복음주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세계 복음주의권 교회들의 올림픽으로도 불리는 로잔대회는 지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존 스토틀 목사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주축이 되어 발표한 <로잔언약>이 시작점이다. 로잔언약 채택 당시 한경직 목사가 아시아권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사진 : Lausanne movement

한국교회·기독교사학, '신앙적 교육권 보장' 촉구

한국교회총연합회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지난 9월 11일(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학교 건학이념에 따른 신앙적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발표에는 본 교회 김운성 목사(영락, 대광학원 이사장), 이영선 장로(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이사장),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사학미션 이사장) 등 교계와 기독교사학 대표자를 포함해 1,0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22년 개정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지금껏 진행은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기독교학교 존립을 위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긴급 성명서에는 정부와 국회가 기독교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해 줄 것



사진 : 한국기독교공보

을 촉구하면서 △건학이념에 따른 신앙적 교육권 보장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 시행령 제21조의 개정' 및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2025 고교학점제 수정' 등을 요구했다.

다음세대와 함께 반세기...중·고등부 전국연합회 창립 50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교회들의 중·고등부 연합체인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5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9월 8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열렸다. 1974년 9월 19일 우리 교회 봉사관에서

열린 창립 예배를 시작으로 출범한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는 50년 동안 청소년 복음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영철 장로 인도로 시작한 감사예배는 30대 회장 함인숙 장로의 기도, 갈릴리찬양대의 찬양, 증경총회장 림형석 목사(평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림형석 목사는 '인생의 만능열쇠'(고린도전서 13:4~7, 13)라는 설교에서 "다음세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역경 중에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모범학생 및 교사시상식에서 우리 교회 고등부 최동호 학생, 중등부 이정란 권사, 고등부 우예인 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사진 : 한국기독교공보

압도적 크기에 담은 구름 위 풍경



Sky Above Clouds IV

1965,
조지아 오키프(O'Keeffe, G.)

조지아 오키프가 77세였던 1965년 여름에 그린 <구름 위 하늘 IV>은 구름을 주제로 한 그녀의 시리즈 중 마지막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무려 가로 7미터, 세로 2미터 이상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이 작품은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시카고 미술관이 영구 소장하게 된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 이 작품은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에서 회고전 순회 전시 예정이었습니다. 뉴욕과 시카고에서 전시를 마친 후 샌프란시스코로 운송하려 했으나 크기가 너무 커 샌프란시스코 미술관 입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십여 년간 시카고 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오키프와 그녀의 작품을 수집하는 컬렉터들의 논의 끝에 결국 시카고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시카고 미술관 2층에서 모던 윙으로 내려가는 계단 벽면에 전시된 이 작품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미술관 내 포토스팟입니다. 70대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그녀는 하늘의 구름 위에서 매혹적인 경관과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일련의 작품들을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은 네 번째이자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2024년 10월호 통권 607호

발행 2024. 10. 0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독사 강승훈 / 편집인 김태영 /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이형일 조지형 소남호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윤영 류정현 안하운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21)

보냄받은 자여! 돌아가라!



홍정길 원로목사

2024년 선교대회

10월 11일(금) ~ 18일(금)



선교부흥회

10월 16일(수) ~ 18일(금) 저녁 7시 본당

주강사 : 홍정길 원로목사 (남서울은혜교회)

문화선교축제

11일(금) 저녁 7시 30분 베다니홀

12일(토) 오후 3시 30분 베다니홀

뮤지컬 "옴 - 하늘진주"

제1회 외국인 유학생 사역자 만남의 날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드림홀

선교주일

13일(주일)

1부 ~ 5부 마당행사

학원선교대회

13일 오후 5시(찬양예배) 본당

김희권 목사 (승실대 기독교학과 교수)

수요1부기도회

16일(수) 오전 10시 30분 본당

노영상 목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선교특강

17일(목) 오후 1시 30분 드림홀

· 남철우 목사 (LA미주기독교방송 대표)

· 조두형 목사 (영락교회 선교부 전담)

영락만나 "만남과 나눔" 바자회

23일(수), 25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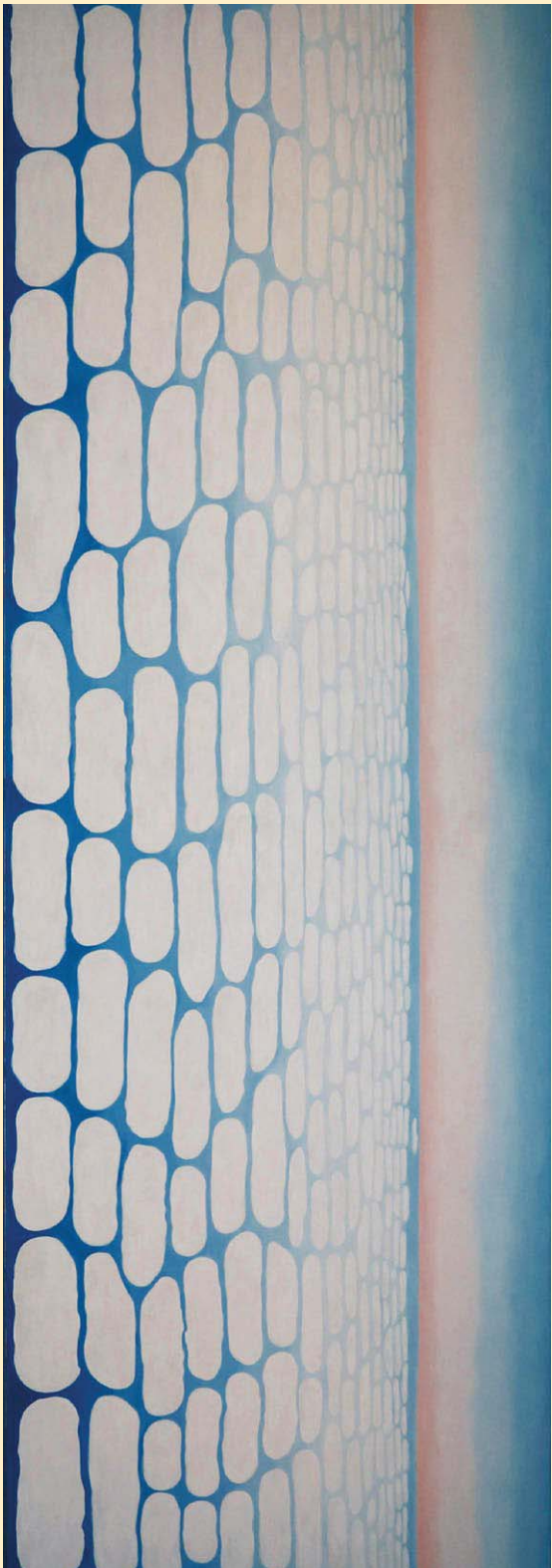
베다니광장, 봉사관 앞, 제1식당

주관 : 여전도회

선교목적헌금 : 군 복음화를 위한 군 교회 지원

구름 위 하늘 IV

1965, 조지아 오키포(O'Keefe, G.)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